

인권정보자료실
ESe1.15

해외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

2003년 10월



(110-280)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전화 02-3675-5808,9 팩스 02-3673-5627

이메일 khis21@empal.com 홈페이지 www.khis.or.kr

해외한국기업 인권현황백서
2003 국제민주연대

인권정보자료실
ESe1.15



(110-280)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전화 02-3675-5808,9 팩스 02-3673-5627

이메일 khis21@empal.com 홈페이지 www.khis.or.kr

해외한국기업 인권현황 백서

2003년 10월

- 본 백서는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인권단체협력사업"에 의한 것임
-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님



(110-280)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전화 02-3675-5808,9 팩스 02-3673-5627

이메일 khis21@empal.com 홈페이지 www.khis.or.kr

차 례

I. 시작하며	9
1. 발간배경 및 목적	9
2. 발간과정	12
3. 백서 내용 개요	13
II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현황과 특징	15
1. 들어가면서	15
2.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현황	16
2-1. 시기별·연도별 현황	16
2-2. 업종별 현황	19
2-3. 지역별 현황	21
2-4. 국가별 현황	22
2-5. 투자규모별 현황	25
2-6. 투자비율별 현황	26
2-7. 기업규모별 현황	27
3.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시기별 흐름	29
3-1. 지역별 비교	29
3-2. 주요 국가별/경제공동체별 비교	31
3-3. 업종별 비교	35
3-4. 기업규모별 비교	37
4. 맺음말 :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특징과 함의	39
4-1. 특징	39
4-2. 함의와 시사점	42

III. 아시아 지역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45
1. 인도네시아	45
1-1. 한국의 투자 상황	45
1-2.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46
사례 1 : 조은 기업	46
사례 2 : PT, ELtri Indo Footwear (前 성화)	47
사례 3 : PT, Pratama Abadi	48
사례 4 : PT. Dasa Busana Sakti	49
사례 5 : PT, Kolon, Korina 1공장	49
사례 6 : PT, Stergantek	51
사례 7 : 카엘마스	51
사례 8 : 인도네시아 보생기업	52
사례 9 : 인도네시아 코오롱	53
2. 방글라데시	53
사례 1 : 영원기업	53
참고자료: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투자관계	54
3. 스리랑카	56
3-1. 한국의 투자 상황	56
3-2.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56
사례 1 : 스리랑카 에이스브리지	56
사례 2 : 노스폴 스리랑카	59
사례 3 : 영지 앤 원즈 랑카	64
사례 4 : 파인랑카	66
사례 5 : 코스모스 매키	68
사례 6 : 조이 랑카	68
참고자료 : 스리랑카의 수출자유지역	69
4. 사이판	76
사례 1 : 사코사	76
5. 버마	78

5-1. 한국의 투자상황	78
5-2. 버마 민주주의와 한국투자기업	79
6. 라오스	80
사례 1 : 대우 호우아이호 댐 건설	80
7. 소결	81
IV. 미주 지역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85
1. 멕시코	85
사례 1 : 한영	86
사례 2 : 풍국	87
참고자료 :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	89
2. 온두라스	95
사례 1 : 기미통상	95
사례 2 : 유양	98
3. 과테말라	99
사례 1 : 최신	99
4. 미국	101
사례 1 : 아씨마켓	101
사례 2 : DKNY 하청공장	104
5. 미국령 서사모아	105
사례 1 : 대우사	105
V. 구 사회주의 국가 한국기업의 인권현황	111
1. 중국	111
1-1. 한국의 투자상황	111
1-2.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112
2. 베트남	114
사례 1 : 삼양 나이키	115
참고 자료 : Clean Clothes Campaign 보도	116

사례 2 : 리영	117
사례 3 : 레이디스 본	117
3. 소결-미주지역 및 구 사회주의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118
VI. 해외한국기업에 대한 정부대응 연구	121
1. 들어가는 말	121
2. 해외투자에 대한 1차적 정부정책	127
3. 전경련-기업윤리헌장 발표	128
4. OECD 가입과 가이드라인	131
5. 2003년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OECD 가이드라인 위배사례	137
인도네시아 삼보기업	137
필리핀 사례1	142
필리핀 사례2	144
6. 산업자원부의 해외노사분규에 대한 입장	147
7. 가이드라인의 실용화를 위한 방안	150
8. 맺음말	152
<별첨 1> OECD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157
VII. 다국적기업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조치	169
1. 개관	169
1-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69
1-2.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170
1-3. 1970년대	170
1-4. 1980년대	172
1-5. 세계화시대	173
2. 유엔	174
2-1.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초안	174
2-2. 인권에 관한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책임에 대한 규범	176

3. OECD	177
3-1. 규범의 내용	177
3-2. 법적 성격	179
3-3. 이행 수단	179
3-4. 사건	181
4. 국제노동기구(ILO)	182
4-1. 삼자선언	182
4-2. 노동에 있어서 근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183
5. 맺음말	184
부록1 유엔 : 인권에 관한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들의 책임규범	187
부록2 국제노동기구(ILO) :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	196
부록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본문	21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주석	23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관한 주석	257
부록4 국제엠네스티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원칙	268
부록5 언론 기사 모음	273
부록6 해외한국기업 감시활동 경과	301
<표 차례>	
표1 시기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17
표2 업종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1968-2003상반기)	20
표3 제조업종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1968-2003상반기)	21
표4 지역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1968-2003상반기)	22
표5 한국기업 해외투자금액 상위 10개국(1968-2003상반기)	23
표6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상위 10개국(1968-2003상반기)	24
표7 투자규모별 해외투자 현황(1968-2003상반기)	26

표8 투자비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1968-2003상반기) ----- 27
 표9 기업규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현황(1968-2003상반기) - 28
 표10 기업규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액 현황(1968-2003상반기) -- 28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한국기업 해외투자액 현황(1968-2003상반기) -----18
 그림 2 연도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현황(1968-2003상반기) -- 19
 그림 3 지역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현황(1981-2003상반기) --- 30
 그림 4 지역별 한국기업 해외투자액 현황(1981-2003상반기) ----- 31
 그림 5 주요국가/경제공동체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1981-2003상반기) ----- 32
 그림 6 주요국가/경제공동체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금액
 (1981-2003상반기) ---- 33
 그림 7 아시아지역 한국기업 해외투자현황(1968-2003상반기합계)-34
 그림 8 업종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추이(1981-2003상반기) -- 35
 그림 9 업종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금액 추이(1981-2003상반기) -- 36
 그림 10 기업규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추이
 (1981-2003상반기) ---- 37
 그림 11 기업규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금액 추이(1981-2003상반기)
 ----- 38

I. 시작하며

1. 발간 배경 및 목적

한국자본과 기업의 해외투자생산이 1980년대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초과하게 되었다. 올해 초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2006년경 제조업의 60%를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해 했다. 즉,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현재 많은 한국중소기업들이 섬유, 의류,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베트남, 중국, 중남미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자동차, 중공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에 투자하고 생산을 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의 전신인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에서 1995년 시작한 해외한국기업 감시운동에는 그동안 여러 국내외 단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었고 이 활동의 역사가 7년이 넘었다.

1990년 대 중반 조사의 특징은 현지조사와 그 문제점을 국내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측면을 담고 있다. 당시 현지조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섬유의류업체가 집약화되어 있는 해외지역에 집중되었다. 이 당시 조사는 참여연대 활동가인 김은영(현재 참여연대 상임활동가)를 주축으로 이대훈(현 참여연대 협동처장), 차미경(다국적기업감시네트워크 연구 담당), 차지훈(변호사)등과 대표를 담당하던 신윤환(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외 시민사회단체 자원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었다. 조사과정 결과는 미약하나마 국내에서 해외기업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2002년이 지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시민단체에서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현지조사는 특정한 지원 없이 필요할 때마다 이뤄진 터

라 1년에 평균 1회 정도로 진행되었다.

한국이 OECD가입을 한 이후 기업감시활동은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개선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현지조사보다 기업감시활동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이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다국적기업감시 활동의 네트워크 총괄을 맡고 있는 최미경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대는 온라인을 통한 활동공유, 대책마련, 조사 등이 되고 있고, 그 결과는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외기업감시활동 네트워크로서 현재 그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현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만원계라고 하는 온라인 시민모임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감시하고, 이에 따라 문제기업을 제소하는 현지 활동단체들과의 연대, 가이드라인 교육 등을 위한 정부와 비정부단체 간의 협력도 모색되었다.

해외한국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문제로는 노조 불인정(노조 설립추진 노동자 해고), 강제 초과노동, 질 낮은 음식제공, 폭언, 성희롱 등이 심각하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차별하며, 특히 수출자유지역에는 현지법을 남용하여 노동탄압을 일삼아 국제노동계의 비난을 수없이 받고 있다.

여기에다 전 세계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이 기업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거나 노동권 준수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업은 공장폐쇄나 이전 등을 해 결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불안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2~3년에는, 베트남, 중국, 중남미 등 한국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 생기고 한국자본의 해외이동이 확대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해외현지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금 불지급, 갑작스런 공장폐쇄, 야반도주 등의 새로운 문제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국내 및 국제여론의 지적과 현지화를 고민하는 기업자체의 노력에 의해 이전보다 노동탄압의 사례가 많이 누그러진 양

상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의 요구와 올해 현지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해외한국기업에서 인권문제는 심각하며 다국적기업이 있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일 뿐 아니라 감시해야하는 물리적인 지역 역시 확대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 자본의 이동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역시 더 확대될 것이다. 또 해외한국기업 감시운동도 2000년대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이후의 활동방향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본 백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발간을 하였다.

-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여년간 해외투자 한국기업에서의 노사 갈등과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해외한국기업에서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는다.
- 해외투자기업의 노동인권 분쟁에 대한 정부의 역할 분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업행동강령을 강화한다.
-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해외 한국기업의 노동인권 현황을 돌아봄으로써 한국기업들의 관행적인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 백서의 영어요약본을 발간해 해외투자 한국기업 현지 노동자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하여 현지 한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권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백서발간을 위해 지나 10여 년 동안 현장조사, 캠페인, 연구 작업에 참여해주신 관련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백서 발간팀을 백서 발간을 계기로 국경 밖에서 이뤄지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노동과 인권의 침해현장에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며, 특히 이를 계기로 기업감시 시민네트워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2. 발간 과정

본 백서는 1993년부터 최근 2003년까지 해외한국기업에서 일어난 노동인권침해와 노사갈등 사례를 종합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조사 보고서, 신문, 인터넷, 인터뷰 등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 자료의 특성상 사례 기업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사태가 해결된 끝까지 일관되게 서술한 것을 찾아 종합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백서답게 조금의 관련된 사항이라도 있으면 되도록 실는다는 기준으로 많은 자료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외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사람들 중심으로 백서 발간팀을 2003년 5월에 구성하였는데 발간팀의 관련 경험은 길게는 8년여부터 짧게는 1년여로 다양하였다. 발간팀이 곧 그대로 필자가 되어 월 1-2회 모여 논의와 집필 점검을 하였다.

각 장마다 필자가 달라 집필형식에서 편차는 있으나 전체 백서의 목적에 맞도록 집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각 필자들은 전체 목적을 공유하고 의견통일 과정을 거쳐 각 장은 각 필자의 책임 하에 집필하였다.

발간 진행 도중 해외현지조사와 아시아다국적기업 감시를 위한 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생겨 본 백서 발간담당자와 필자 1인이 함께 하였다. 1차로는 버마 한국기업관련 조사를 위해 버마지원단체들이 많이 있는 태국의 방콕과 버마의 국경지역 메솅을 방문하였다. 버마 관련한 첫 조사여서 한국기업에 대한 직접조사는 어려웠지만 이후 이 문제에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본 서의 III.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기업 인권현황에 버마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2차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수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하였고 본 서의 정부의 대응편에 그 조사 내용이 실려 있다. 위 두 차례의 현지 조사는 본 백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국적기업감시 관련 단체들에게도 보고를 하여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3. 백서 내용 개요

먼저 II장에서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에 대하여 시기별, 업종별, 지역별, 지역공동체별, 투자규모·비율별, 기업규모별 분석을 하였고 IMF 경제위기와 2000년대 흐름을 짚어보았다.

III, IV, V장에서는 아시아와 미주, 구 사회주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례 중심으로 인권상황을 담았다. 각 장의 말미에 거칠게나마 필자들의 소견을 실었다.(III, IV장은 한 필자가 집필하여 소견을 한번만 집필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한국의 투자현황을 간략히 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자료를 그때그때 실었다.

장에서는 해외한국기업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사회단체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이후에 해외한국기업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방법도 실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한국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유엔, 세계노동기구(ILO), OECD 등의 다국적기업 관련 규범(행동강령, Code of Conduct)의 역사와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부록에서는 먼저 지난 2001년 있었던 멕시코 국동 기업에 대한 현지 조사 보고서를 실었다. 비교적 최근에 국내의 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벌여 성공한 사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규범 중 중요한 몇 가지와 함께 신문에 실린 해외한국기업 관련 기사, 국제민주연대에서 해외한국기업 감시활동경과를 실었다. 국제적인 다국적기업 규범은 영어로도 실으려고 했으나 분량이 너무 많아 이후에 별도의 자료집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글을 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되도록 다양한 내용을 한번이라도 다루어 이후 해외한국기업에서 인권문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대응하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백서 발간 작업에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해외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

II.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현황과 특징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담당)

1. 들어가면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때는 1968년이다. 남방개발이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임업개발에 285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한국기업의 첫 해외투자 사례이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삼림개발과 수산업에 집중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후반 들어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이라는 외부 영향,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임금인상이라는 내부 상황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 경제의 지역화(regionalisation) 경향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간접수출형 투자와 생산의 효율성 제고의 방향으로 이뤄졌으며, 근래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활동의 세계화(globalisation) 전략도 비중 있게 떠오르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원 확보

를 위해 시작되어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시장개척 단계를 거쳐, 저임금 등의 낮은 생산비용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영업활동의 세계화를 통한 '현지시장 접근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를 활용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을 수량적으로 분석하면서 추세와 특징을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현황

1968년 이후 2003년 6월까지 35년 동안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건수는 모두 18,068건, 해외투자액은 모두 421억9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기업이 해외투자를 위해 진출한 나라는 모두 150개국에 이르렀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을 시기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투자규모별, 투자비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시기별·연도별 현황

- 김대중 정부 시기 해외투자 최다,

최근 10년의 투자 건수·투자금액이 전체 85% 넘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1980년 기간에는 352건(1.9%), 1억4천만 달러(0.3%)에 불과했으며,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1987년 기간에도 379건(2.1%), 9억9천만 달러(2.4%)로 의미 있는 증가가 없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1992년 기간에 1,724건(9.5%), 40억8천만 달러(9.7%)로 이전 시기에

비해 건수와 금액에서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1997년 기간에 6,291건(34.8%), 147억4천만 달러(34.8%)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2003년 상반기 기간에 9,322건(51.6%), 222억9천만 달러(52.8%)를 기록해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해외투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김영삼·김대중 정부 10년 동안 전체 투자건수의 86.4%, 전체 투자금액의 87.6%가 이뤄졌다.

[표1] 시기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단위: 1천 달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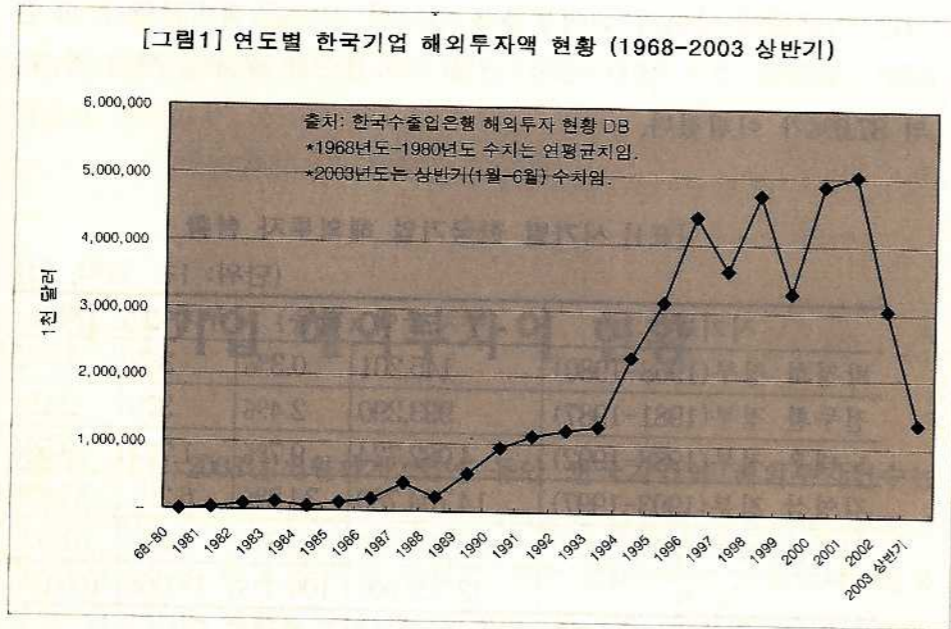
시기별	투자금액 (비율)		투자건수 (비율)	
박정희 정부(1968-1980)	145,201	0.3%	352	1.9%
전두환 정부(1981-1987)	993,290	2.4%	379	2.1%
노태우 정부(1988-1992)	4,082,724	9.7%	1,724	9.5%
김영삼 정부(1993-1997)	14,704,780	34.8%	6,291	34.8%
김대중 정부(1998-2003)	22,297,905	52.8%	9,322	51.6%
전 체	42,223,900	100.0%	18,068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초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87년 91건으로 20년 동안 두 자리 수를 넘기지 못하던 투자건수는 1988년 들어 171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리 수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투자금액은 1987년 4억9천만 달러에서 1988년 2억1천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후 투자건수는 계속 늘어 1994년 1,488건(23억2천만 달러)으로 1993년 688건(12억6천만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불붙기 시작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제위기를 맞이한 1998년에도 (투자건수는 614건으로 주춤했으나) 투자액수가 47억2천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0

년대 중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들어 투자건수가 매년 2천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상승 행진을 계속했다.



특히 2001년에는 투자액이 50억3천만 달러(2,115건)를 넘어서 해외투자액에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으며, 2002년에는 투자건수가 2,404건(30억3백만 달러)에 달해 투자건수에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투자가 처음 이뤄진 1968년부터 1987년까지 20년 동안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해외투자가 양적·질적으로 커지기 는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이뤄진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5년에 들어서서야 누적 해외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94년부터 2003년 상반기 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누적 투자액이 전체 비중의 80%를 넘는 350억 달러에 달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2-2. 업종별 현황

- 제조업 투자가 투자건수 60%, 투자금액 50% 넘어

1968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투자건수 18,068건의 62.0%를 차지해 11,206건에 달했다. 다음은 도소매업 2,713건(15.0%), 부동산 및 서비스업 1,960건(10.8%), 숙박음식점업 721건(4.0%), 농림어업 408건(2.3%), 운수창고업 363건(2.0%), 건설업 349건(1.9%), 통신업 162건(0.9%), 광업 151건(0.8%), 금융보험업 29건(0.2%) 순이었다.

투자금액에서도 제조업은 224억5천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53.2%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도소매업 91억 달러(21.6%), 부동산 및 서비스업 41억 달러(9.7%), 광업 25억9천만 달러(6.1%), 통신업 13억8천만 달러(3.3%), 숙박음식점업 10억7천만 달러(2.6%), 건설업 7억6천만 달러(1.8%), 운수창고업 2억6천만 달러(0.6%) 순이었다. 투자액 측면에서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은 투자건수와 마찬가지로 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광업과 통신업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해 두 업종의 투자액 규모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업종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1천 달러)

	투자건수 (비율)		투자금액 (비율)	
농림어업	408	2.3%	437,607	1.0%
광업	151	0.8%	2,586,906	6.1%
제조업	11,206	62.0%	22,455,503	53.2%
건설업	349	1.9%	760,985	1.8%
도소매업	2,713	15.0%	9,101,150	21.6%
운수창고업	363	2.0%	267,733	0.6%
통신업	162	0.9%	1,387,908	3.3%
금융보험업	29	0.2%	18,061	0.0%
숙박음식점업	721	4.0%	1,076,923	2.6%
부동산및서비스업	1,960	10.8%	4,098,923	9.7%
기타	6	0.0%	2,201	0.0%
합계	18,068	100.0%	42,193,900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제조업을 세분했을 때 투자건수에서 가장 많은 해외투자가 이뤄진 분야는 섬유 의복으로 2,401건(21.4%)을 기록했다. 다음은 전자통신장비로 1,606건(14.3%), 기타 업종 1,402건(12.5%), 기계장비 1,037건(9.3%), 석유화학 1,002건(8.9%), 음식료품 763건(6.8%), 신발가죽 744건(6.6%) 순이었다. 반면, 제조업에서 투자금액상 가장 많은 해외투자가 이뤄진 분야는 전자통신장비로 82억2천만 달러로 제조업종별 전체 투자금액의 36.6%를 차지했다. 다음은 수송기계로 26억 달러(11.6%)의 투자가 이뤄졌고, 제조업종별 투자건수에서 1순위였던 섬유 의복은 24억9천만 달러(11.1%)를 기록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석유화학 18억6천만 달러(8.3%), 기계장비 17억8천만 달러(7.9%), 1차 금속 14억 달러(6.2%) 순이었다.

이렇듯 제조업종별 해외투자를 살펴보았을 때,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순위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최대 투자건수를 기록한 섬유 의복 분야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투자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로

주된 구성이 이뤄져 있는 반면, 전자통신장비, 수송기계, 석유화학, 기계장비는 시설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데서 연유한다.

[표3] 제조업종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1천 달러)

업종별	투자건수 (비율)		투자금액 (비율)	
음식료품	763	6.8%	827,915	3.7%
섬유의복	2,401	21.4%	2,490,666	11.1%
신발가죽	744	6.6%	558,285	2.5%
목재가구	406	3.6%	257,230	1.1%
종이인쇄	274	2.4%	334,740	1.5%
석유화학	1,002	8.9%	1,862,615	8.3%
비금속광물	353	3.2%	720,406	3.2%
1차금속	276	2.5%	1,402,746	6.2%
조립금속	504	4.5%	568,781	2.5%
기계장비	1,037	9.3%	1,784,176	7.9%
전자통신장비	1,606	14.3%	8,220,562	36.6%
수송기계	438	3.9%	2,603,855	11.6%
기타	1,402	12.5%	823,526	3.7%
전체	11,206	100.0%	22,455,503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2-3. 지역별 현황

- 아시아에 최대 해외투자, 다음은 북미·유럽 순

1968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해외투자가 이뤄진 지역은 아시아였다. 아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12,141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67.2%를 차지했고, 투자금액은 169억2천만 달러를 넘어 40.1%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투자가 많이 이뤄진 지역은 북미로 전체 투자건수의 20.8%인 3,758건, 전체 투자액의 29.0%인 122억3천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 다음은 유럽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4.5%인 809건, 전체 투자액의 17.0%인 71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대양주(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에 대한 투자는 건수나 액수에서 10% 전 후에 머물렀다.

지난 35년 동안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세 지역에 대한 투자건수가 16,708건으로 전체의 92.2%에 달하고, 투자금액이 363억5천만 달러로 전체의 86.2%를 기록한 데서 잘 드러난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2개국으로 이뤄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이 각각 3,752건과 115억6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에서 미국이 이 지역 투자의 95%를 차지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표4] 지역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1천 달러)

지역	투자건수 (비율)		투자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아시아	12,141	67.2%	16,921,488	40.1%
중동	96	0.5%	801,614	1.9%
북미	3,758	20.8%	12,239,255	29.0%
중남미	516	2.9%	3,362,452	8.0%
유럽	809	4.5%	7,192,067	17.0%
아프리카	142	0.8%	729,368	1.7%
대양주	606	3.4%	947,656	2.2%
전체	18,068	100.0%	42,193,900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2-4. 국가별 현황

- 투자건수 중국이 최대, 투자금액은 미국이 최대

지난 35년 동안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이뤄진 나라는 모두 150개국이었으며, 투자건수에서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국은 중국이고, 투자금액에서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었다. 중국과 미국은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 1, 2위를 차지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이 두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표5] 한국기업 해외투자금액 상위 10개국 (1968-2003 상반기)

(단위: 1천 달러, 건)

국가	투자금액 (비율)		투자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미국	11,566,099	27.4%	3,572	19.8%
중국	7,176,245	17.0%	8,036	44.5%
네덜란드	2,155,345	5.1%	56	0.3%
인도네시아	2,026,343	4.8%	582	3.2%
홍콩	1,643,802	3.9%	531	2.9%
버뮤다	1,482,887	3.5%	11	0.1%
영국	1,462,474	3.5%	127	0.7%
베트남	957,635	2.3%	398	2.2%
독일	895,404	2.1%	187	1.0%
인디아	775,098	1.8%	108	0.6%
합계	30,141,332	71.4%	13,608	75.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투자금액의 측면에서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미국이 115억6천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27.4%를 차지했고, 중국 71억7천만 달러(17.0%), 네덜란드 21억5천만 달러(5.1%), 인도네시아 20억2천만 달러(4.8%), 홍콩 16억4천만 달러(3.9%), 영국, 버뮤다, 베트남, 독일, 인디아 순이었다. 투자금액에서 상위 10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투자액의 70%를 넘었고, 특히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187억4천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40%를 넘었다. 버뮤다는 투자건수가 11

건인데 비해 투자금액이 14억8천만 달러(3.5%)로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는데, 2000년 이뤄진 부동산및서비스업에서의 13억 달러짜리 대형 투자가 주된 이유였다. 그리고 해외투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건수는 많으나 투자금액은 적은 반면, 미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건수에 비해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6]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상위 10개국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1천 달러)

국가	투자건수 (비율)		투자금액 (비율)	
중국	8,036	44.5%	7,176,245	17.0%
미국	3,572	19.8%	11,566,099	27.4%
일본	639	3.5%	742,891	1.8%
필리핀	623	3.4%	688,993	1.6%
인도네시아	582	3.2%	2,026,343	4.8%
홍콩	531	2.9%	1,643,802	3.9%
베트남	398	2.2%	957,635	2.3%
말레이시아	269	1.5%	445,852	1.1%
태국	250	1.4%	610,691	1.4%
호주	227	1.3%	611,800	1.4%
합계	15,127	83.7%	26,470,351	62.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투자건수의 측면을 살펴보면, 150개국에서 이뤄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18,068건 가운데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44.5%인 8,0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3,572건(19.8%), 일본 639건(3.5%), 필리핀 623건(3.4%), 인도네시아 582건(3.2%),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순이었다. 투자건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 5개국은 투자금액에서도 상위 10개국에 들었던

반면,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는 투자건수는 많은 데 비해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투자건수에서만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는 11,608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으며, 투자건수 상위 10개국이 전체 투자에서 점하는 비중은 투자건수의 83.7%(15,127건), 투자금액의 62.7%(264억7천만 달러)에 달해 투자금액은 물론 투자건수에서도 특정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다.

추가로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 미국 두 나라를 좀더 살펴보자.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제조업에서 이뤄졌는데, 6,964건, 60억4백만 달러를 기록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에서 80%를 넘었다. 미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제조업이 가장 많았는데 915건, 54억1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비중에서 각각 25.6%와 46.9%를 차지했다. 미국에서의 제조업 투자는 평균 투자액이 1건당 590만 달러에 달해 중국에서의 1건당 평균 투자액 86만 달러를 7배나 웃돌았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건수에서 70.3%, 투자금액에서 50.9%에 달하는 사정도 특기할 만하다.

2-5. 투자규모별 현황

- 투자금액에선 대규모 투자 주도,
투자건수에선 소규모 투자 다수

투자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투자건수에서는 1백만 달러 이하 투자가 14,910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5백만불 이하 2,146건(11.9%), 5천만불 이하 471건(2.6%), 1천만불 이하 411건(2.3%), 5천만불 초과 130건(0.7%) 순이었다.

반면, 투자금액으로 따지면, 투자건수 기준으로 1%도 안되었던 5천

만불 초과가 절반에 육박하는 202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5천만불 이하가 108억2천만 달러로 25.7%, 5백만불 이하가 47억8천만 달러로 11.3%, 1백만불 이하가 33억6천만 달러로 8.0%, 1천만불 이하가 29억6천만 달러로 7.0%를 차지해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이 정반대의 추세를 보였다. 특히, 1백만불 이하 규모의 투자건수가 전체 투자의 80%를 넘는 14,910건인데 반해, 이 규모대의 투자액은 총투자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투자건수 측면에서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준다.

[표7] 투자규모별 해외투자 현황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1천 달러)

투자규모	투자건수		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14,910	82.5%	3,366,463	8.0%
5백만불 이하	2,146	11.9%	4,781,699	11.3%
1천만불 이하	411	2.3%	2,961,500	7.0%
5천만불 이하	471	2.6%	10,824,202	25.7%
5천만불 초과	130	0.7%	20,260,036	48.0%
전체	18,068	100.0%	42,193,900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2-6. 투자비율별 현황

- 단독 투자 선호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은 단독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분을 100% 투자가 10,758건으로 전체 투자의 60%에 달하고, 투자금액도 263억2천만 달러로 62%를 넘어선 데서 잘 드러난다. 특히, 지분을 50% 이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투자건수의 81.8%인 14,779건, 전체 투자금액의 87.7%인 369억8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표8] 투자비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1천불)

비율	투자건수 (비율)		투자금액 (비율)	
10%미만	364	2.0%	929,475	2.2%
10-50%미만	2,925	16.2%	4,277,315	10.1%
50%	1,197	6.6%	1,848,484	4.4%
50-100%미만	2,824	15.6%	8,810,228	20.9%
100%	10,758	59.5%	26,328,398	62.4%
전체	18,068	100.0%	42,193,900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2-7. 기업규모별 현황

- 대기업 전체 투자의 76% 차지, 대기업 아시아·북미·유럽에 고루 투자, 중소기업 아시아 편중 심해

지난 35년 동안 대기업의 총투자건수는 2,791건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11,255건으로 62.3%였으며, 개인투자를 포함한 기타 투자가 4,022건으로 22.3%를 점했다. 아시아, 북미, 중남미, 대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건수가 대기업을 앞선 데 비해, 유럽과 중동 지역은 대기업의 투자건수가 중소기업을 근소하게 앞서 이 두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투자금액 측면에서 기업규모별 해외투자를 비교하면, 대기업이 320억7백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76.0%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91억7천만 달러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표9] 기업규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현황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지역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아시아	1,377	49.3%	8,551	76.0%	2,213	55.0%
북미	644	23.1%	1,742	15.5%	1,372	34.1%
유럽	376	13.5%	358	3.2%	75	1.9%
중남미	178	6.4%	310	2.8%	28	0.7%
대양주	103	3.7%	188	1.7%	315	7.8%
아프리카	57	2.0%	69	0.6%	16	0.4%
중동	56	2.0%	37	0.3%	3	0.1%
합계	2,791	100.0%	11,255	100.0%	4,022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표10] 기업규모별 한국기업 해외투자액 현황 (1968-2003 상반기)
(단위: 건)

지역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아시아	11,638,403	36.3%	4,886,141	53.3%	396,944	41.9%
북미	9,959,004	31.1%	1,873,694	20.4%	406,557	42.9%
유럽	6,867,486	21.4%	310,022	3.4%	14,559	1.5%
중남미	1,472,756	4.6%	1,826,877	19.9%	62,819	6.6%
대양주	661,088	2.1%	223,557	2.4%	63,011	6.7%
아프리카	695,826	2.2%	31,275	0.3%	2,267	0.2%
중동	779,272	2.4%	21,617	0.2%	725	0.1%
합계	32,073,835	100.0%	9,173,183	100.0%	946,882	100.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50.3%(48억8천만 달러)가 아시아에 집중된 반면, 대기업의 경우 36.3% (111억6천만 달러)만이 아시아에 투자되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지역별 투자가 중소기업보다 고루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미 투자의 경우 대기업 해외투자의 31.1%(99억 5천만 달러)가 북미 지역에서 이뤄진 반면,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경우 20.4%(18억7천만 달러)에 그쳤

으며, 대유럽 투자의 경우, 대기업 해외투자의 21.4%(68억6천만 달러)가 유럽 지역에서 이뤄진 반면, 중소기업의 이 지역투자는 3.4%(3억1천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반면, 북미와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투자금액 자체만을 비교하더라도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기업의 투자금액 합계가 중소기업의 투자금액 합계를 훨씬 앞질렀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3.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시기별 흐름

3-1. 지역별 비교

- 90년대 들어 투자건수 아시아·북미 압도적

지난 35년 동안의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4-1996년 시기에 1천건을 넘어섰던 아시아 투자는 1997-1999년 IMF 경제위기 동안 세 자리수로 떨어졌다가 경기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2000년 이후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03년에도 무난히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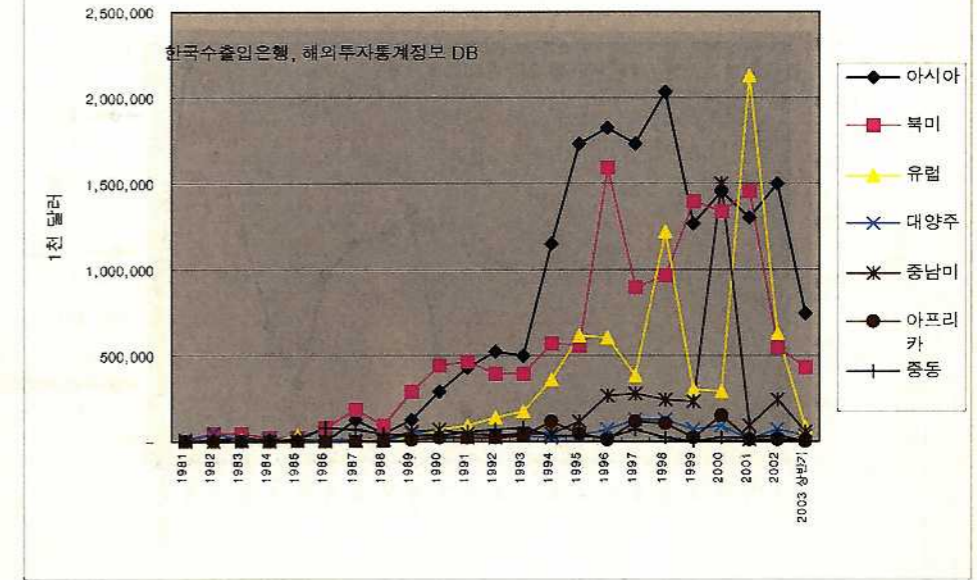
아시아 다음으로 큰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지역인 북미에 대한 투자건수는 1987년까지 다른 지역보다 많았는데, 1988년 아시아에 추월당했으며, 2000년 70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 대비되는 것으로 대중국 투자의 증가와 대미국 투자의 감소 추세는 앞으

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유럽, 대양주, 중남미에 대한 투자건수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두 자리 수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지난 35년 동안의 지역별 투자금액은 투자건수와는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건수에서 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의 비중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데 비해, 투자금액에서는 세 지역의 비중차가 투자건수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2001년의 경우 대유럽 투자건수는 69건에 불과했으나, 투자액수는 21억2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01년 대아시아 투자의 경우 투자건수는 1,40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투자액은 12억9천만 달러에 그쳤다. 아시아, 북미, 유럽 세 지역을 비교할 때 드러나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추세의 불일치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소액투자인데 반해, 북미와 유럽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 위주의 고액투자인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지역별 한국기업 해외투자액 현황 (1981-2003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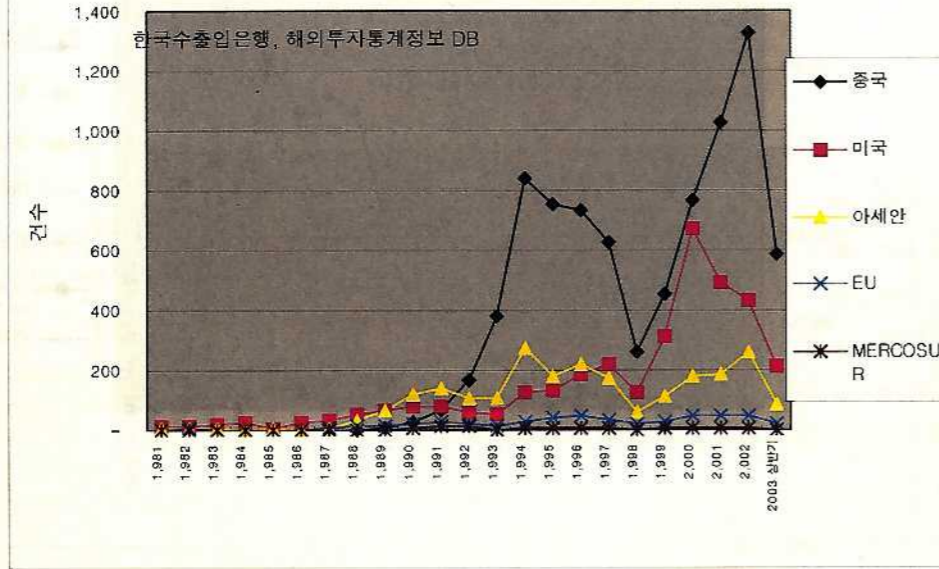


3-2. 주요 국가별/경제공동체별 비교

- 90년대 초까지 미국과 ASEAN 주도,
90년대 이후 중국이 최대투자국 부상

1990년대 초까지 미국과 ASEAN은 한국 기업의 최대투자 대상 지역이었다. 투자건수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중국이 부상하기 전인 1991년까지 선두를 다투었고, 투자금액에서도 1992년까지 이 두 지역이 선두를 다투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한중관계의 해빙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바뀌게 된다. 지금은 한국기업의 최대투자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에 대한 투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참 늦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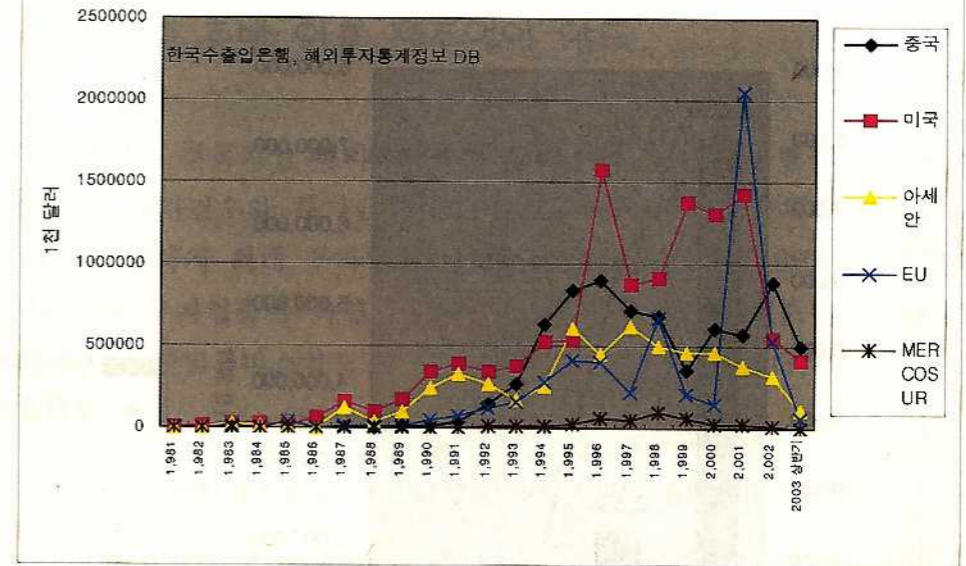
[그림5] 주요 국가/경제공동체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건수 (1981-2003 상반기)



그러나 이후 대중국투자는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급상승해 투자건수에서 중국은 1992년부터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에서도 미국에 이어 2순위를 차지할 만큼 급부상하였다. 최근에는 투자금액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눌렀는데, 투자금액에서 미국을 앞선 기간은 1994-1995년, 2002-2003년 상반기로 얼마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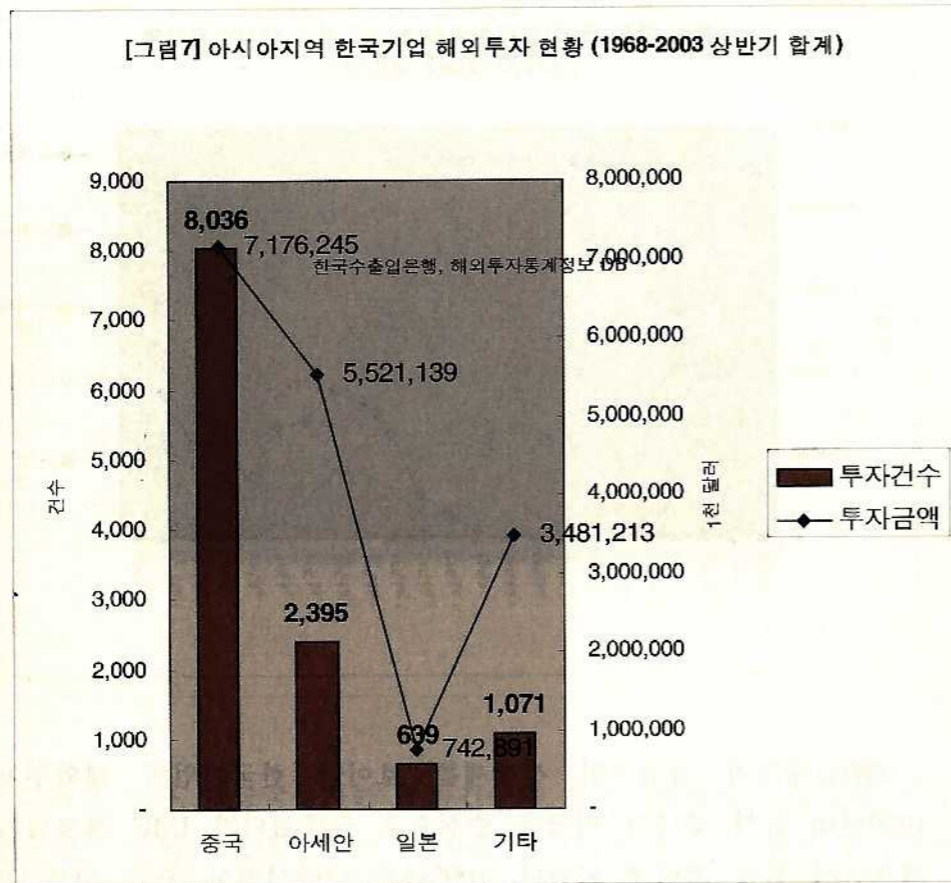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 주요 투자 지역이었던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투자건수에서 1989-1995년 기간을 제외하곤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뒤졌으며, 투자금액에서도 1993년부터 중국에 뒤졌다.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건수는 IMF 경제위기 동안 두 자리 수로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나, 투자금액은 1997년 6억1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2년에는 3억1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그림6] 주요 국가/경제공동체별 한국기업 해외투자금액 (1981-2003 상반기)



1980년대까지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들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했다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풀 꺾이게 되었다. 1999년을 넘어서면서 중국, 미국, EU, ASEAN 등 주요 국가/경제공동체 모두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2000년을 전후로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차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11월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일시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중장기적인 증가세를 꺾지는 못했다. 이는 주요 국가/경제공동체에 대한 1998년과 이후의 투자금액이 위기 이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5년 동안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모두 12,141건, 169억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전체 투자건수의 66.2%(8,036건), 전체 투자금액의 42.4%(71억7천만 달러)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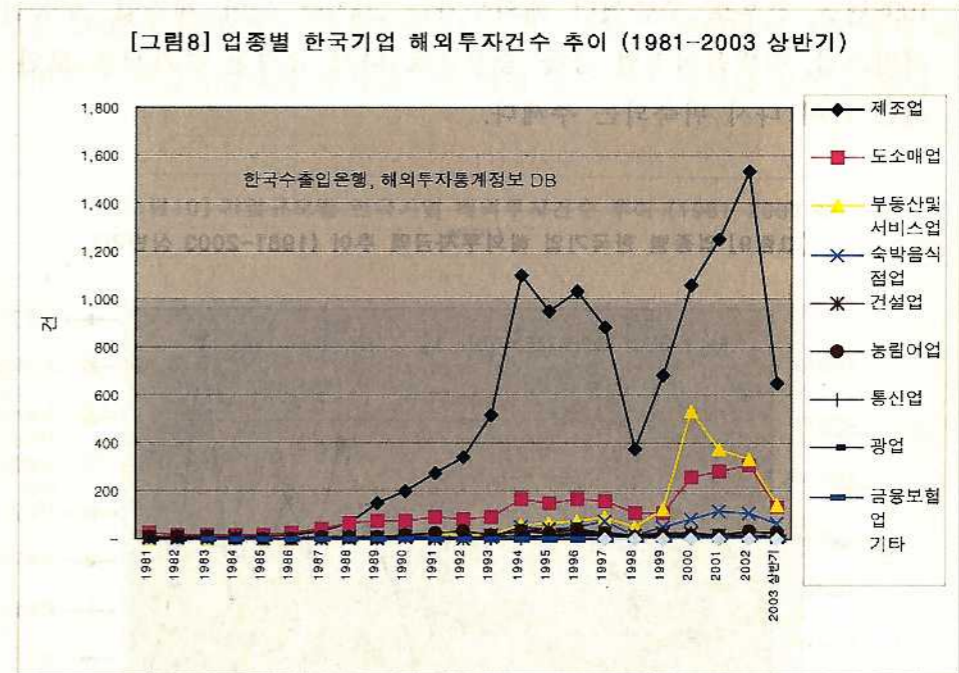


아시아지역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많은 곳은 ASEAN 국가들로 지역 투자건수의 19.7%(2,395건), 투자금액의 32.6% (55억2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1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대중국 투자가 89만3천 달러인데 반해, 대ASEAN 투자는 230만5천 달러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일본 평균 투자액 116만3천 달러보다 2배나 많은 수치로 ASEAN 국가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규모가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 중국과 ASEAN 두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지역 전체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각각 85.9%와 79.0%를 차지했다.

3-3. 업종별 비교

- 80년대까지 광업·도소매업 해외투자 주도,
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이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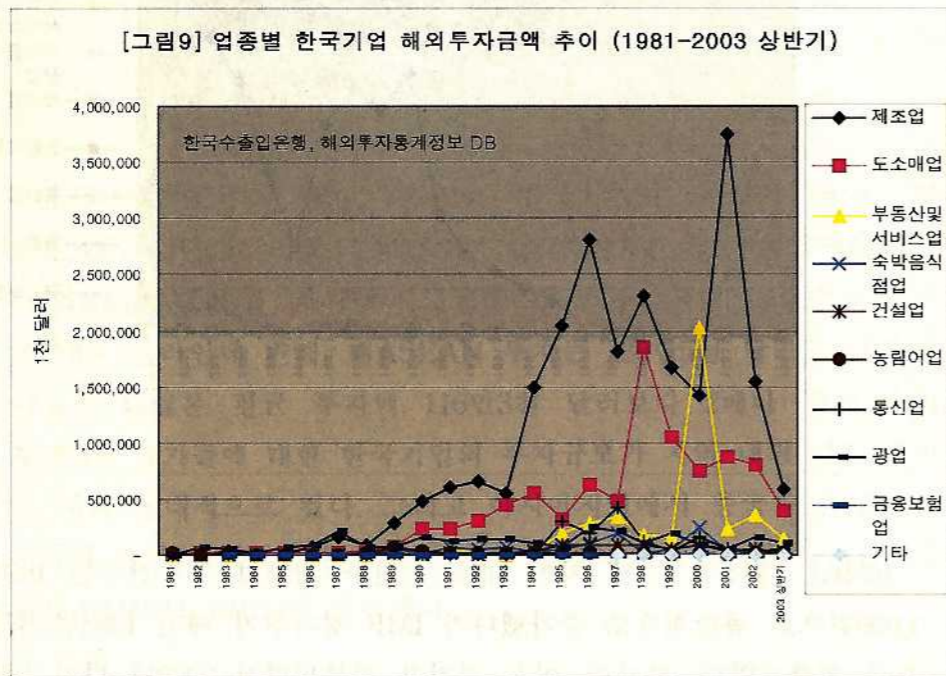
제조업은 한국기업 해외투자에서 최대 업종이다. 업종별 비교에서 제조업은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모두에서 1988년부터 1순위를 기록했고, 이후 지금까지 최대 투자업종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최대 투자업종에 속했던 것은 도소매업과 광업이었으며, 1990년대 들어 부동산및서비스업도 새로운 투자 업종으로 떠올랐다.



1989년 148건으로 세 자리 대에 진입한 제조업 투자건수는 1994년 1,09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IMF 경제위기 때인 1998년 377건으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0년 다시 1천건

을 넘어선 다음 200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533건을 기록했다. 도소매업은 1994년 168건으로 처음 세 자리 대에 진입한 다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0년 261건, 2001년 286건, 2002년 312건 등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성장을 계속했다. 부동산및서비스업은 경제위기가 회복되던 1999년 12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00년에는 533건으로 투자건수가 크게 늘어난 다음, 2001년 376건, 2002년 336건으로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1994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IMF 경제위기가 들이닥친 1997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을 전후로 주춤했던 해외투자는 2000년 들어 제조업, 부동산및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최근 들어 다시 위축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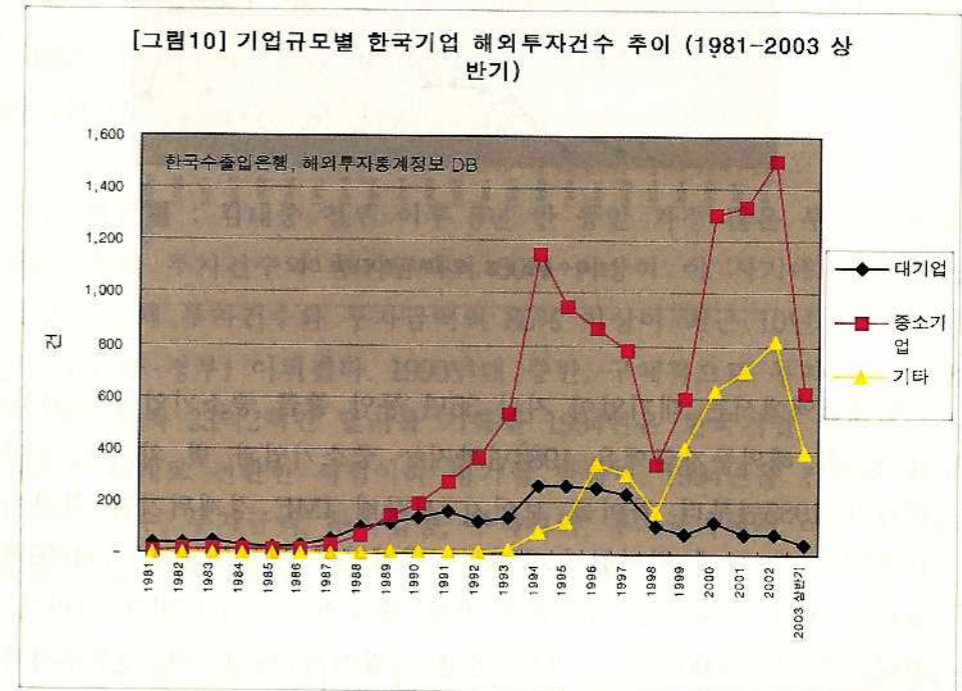


3-4. 기업규모별 비교

- 9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해외투자 급증,
IMF 경제위기 때인 98년 최고치 기록

기업규모별 해외투자를 연도별로 따져보면 투자건수에서는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1988년까지 중소기업을 앞섰으나, 1989년 이후 중소기업에 추월당한 후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투자건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1994년 1,14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중소기업의 투자건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347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다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중소기업의 투자건수는 2002년 1,508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투자건수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건수는 1988년 102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리 수를 기록한 이래 1995년 259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1990년대 내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IMF 경제위기로 한 풀 꺾이며, 1999년 80건으로 내려앉았다. 다음해인 2000년 124건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1년 73건, 2002년 77건, 2003년 상반기 38건으로 2000년대 들어 두 자리 대에 머물고 있다.



투자금액에서는 대기업이 지난 35년 동안 줄곧 중소기업을 능가했다. 대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1984년까지는 중소기업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985년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가장 크게 벌어졌다. 1998년 대기업의 해외투자액은 44억6백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2억7천만 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2000년에는 반대 현상이 벌어져 대기업의 해외투자액은 23억9천만 달러로 내려앉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23억1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해외투자액은 2001년 40억5백만 달러로 다시 치솟았으나, 2002년 18억6백만 달러, 2003년 상반기 7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액도 2002년 10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을 뿐, 2000년대 들어 2000년 수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4. 맺음말 :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특징과 함의

4-1. 특징

1968년이래 35년 동안 이뤄진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기별 : 김대중 정부 이후 5년 반 동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전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 이 시기에 이뤄졌다. 그리고 전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85% 이상이 최근 10년 동안(김영삼·김대중 정부) 이뤄졌다. 1990년대 중반, 구체적으로 투자건수 1488건, 투자금액 23억2백만 달러를 기록한 1994년은 한국기업 해외투자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한 시점이라 평가할 만하다. 1994년을 전후한 시기는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지역, 투자국가에서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업종별 : 제조업이 전체 투자건수의 60% 이상,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업과 부동산및서비스업

이 다음으로 비중이 컸다. 1980년대까지는 광업과 도소매업이 해외투자를 주도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다른 업종을 압도했다. 제조업에서는 섬유·의복 분야에의 투자건수가 2,40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투자금액에서는 전자통신장비가 82억2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 지역별 :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지역은 아시아로 전체 투자건수의 67%, 투자금액의 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북미와 유럽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아시아, 북미, 유럽에 대한 투자건수는 전체의 92%, 투자금액은 86%에 달해 지난 35년 동안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이들 세 지역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추세는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더욱 분명지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건수는 아시아와 북미에 크게 못 미치는 데 비해, 투자금액은 아시아와 북미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건당 평균투자액 규모는 유럽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경제공동체별 :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지역은 미국과 ASEAN이었으나, 1991-1992년을 거치면서 중국이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첫 투자는 1988년에 이뤄졌으나,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투자건수에서 최대, 투자금액에서 미국 다음의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 투자금액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건수는 많으나 투자금액은 작는데 비해, 미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건수에 비해 투자금액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투자규모·비율별 : 투자건수에서는 1백만불 이하 투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나, 투자금액에서는 5천만불 초과 투자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투자규모별 추세는 전체적인 투자건수, 투자금액 추세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각 투자규모별 추세 역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비율의 측면에서 한국기업은 단독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을 100% 투자가 전체의 60%에 달했으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50% 이상의 투자를 모두 합치면 투자건수의 81%, 투자금액의 87%에 달했다.

(6) 기업규모별 : 투자건수에서 중소기업이 전체의 62%, 대기업이 15%를 차지한 반면, 투자금액에서는 반대로 대기업이 전체의 76%, 중소기업이 21%를 차지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시아, 북미, 유럽에 고루 투자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는 아시아에 편중되었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이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에서 모두 중소기업을 앞섰으며, 투자금액에서는 중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앞섰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해외투자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데 반해,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들에 투자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투자금액에서 아시아와 중국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훨씬 앞섰다. 지난 35년 동안 투자금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능가한 시기는 없으며, 투자건수에서 1989년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서고 있을 뿐이다.

(7) IMF 경제위기와 2000년대 흐름: 1997년 11월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는 했으나, 증가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IMF 경제위기는 주요 국가, 지역, 업종, 기업규모 등 모든 범주에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IMF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해외투자금액(2001년 50억3천만 달러)과 해외투자건수(2002년 2,404건)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수준을 상회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해외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1990년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

히려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2. 합의와 시사점

이 글에서 시도한 지난 35년 동안의 한국기업 해외투자에 대한 수량 분석은 몇 가지 합의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글은 대부분 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의 급격한 임금상승에 영향을 받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임금인상과 노동권의 개선이라는 압박 요인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한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서의 분석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1994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과 IMF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해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외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세계화(globalisation)와 지역화(regionalisation) 흐름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자극했으며, 대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1994-1995년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좋은 시기를 거치면서 초국적기업으로 급성장한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한국 재벌들의 글로벌 전략이 주요 동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중국, 미국,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65%를 넘고, 전체 투자액의 76%를 대기업이 차지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만약, 임금인상이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가장 큰 이유라면,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에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둘째,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글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에 대한 투자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역장벽 회피와 현지시장 접근에서의 용이성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

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할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건수보다 많았고, 투자금액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을 훨씬 앞섰으며, 무엇보다 유럽연합에 대한 투자액은 아세안에 대한 투자액과 거의 비슷했다. 물론 투자건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이지만,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벌, 즉 한국 국적의 초국적기업들(TNCs)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활발하다는 점에서도 한국 국적의 초국적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KOTRA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초국적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시킨 기업들은 삼성 215개, LG 202개, 현대 190개, SK 66개, 대우 195개에 이른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 풍부한 인력,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기존의 초국적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넷째,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자본은 '제조업의 공동화' 등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심각성을 부각시킬 뿐,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은 적이 없다. 심한 경우, 기업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자본의 해외이전 협박을 모른 채 하거나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은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따라서 경제, 산업, 교육, 사회, 노동 정책을 통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시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나 자본은 물론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 역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대해 우려만 할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다섯째,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이 채용한 현지 인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이동'은 현지 노동력의 '구입과 사용'을 뜻한다. 평균해서 해외투자 1건당 현지인력 10명을 사용한다고 할 때, 지난 35년 동안 한국기업에 채용된 연인원은 18만 명에 달하며, 200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일하는 지에 대한 자료나 정보는 국내에 별로 없다. 투자건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채용 인력에 대한 대우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실상은 국내에 소개되는 현지 언론의 보도나 국내외 인권NGO들의 폭로를 통해 간헐적으로 알려질 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활동으로 많은 외국 국민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와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는 물론 한국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떠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아시아 지역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강혜원

1. 인도네시아

1-1. 한국의 투자 상황¹⁾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규모는 1967-2001 기간 중 누계치 기준 1,145건 총 9,529백만불(인니정부 승인기준)로 전체 외국투자국가 중 건수면에서 3위, 금액면에서 7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도 한국의 대 인니 투자진출 승인은 3.7억불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570여개사 내외로, 이중 섬유 및 섬유관련 업체가 143개사, 완구 및 완구 관련업체가 27개사, 신발 및 신발관련 업체가 약 37개사, 삼성, 현대, 대우, LG, 미원 등 그룹 계열사 51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니 노동자수는 약 50만명 정도로, 인니 전체 경제활동 인구(9천만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니내 한국계 기업의 수출비중을 보면, 섬유·봉제가 인니의 전체 섬유·봉제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은 31%, 완구는 33%이다.

한국기업은 95년 이후부터는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사회간접자본

1) 대한무역진흥공사 인터넷 자료실 www.kotra.or.kr

(SOC) 등 기간산업분야 까지 진출하고 최근 들어서는 IT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1-2.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사례 1 : 조은 기업²⁾>

90년 이래로 큰 문제가 되었던 기업. PT Usahaloka와 원래 합작하여 설립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분리하여 이전.

이후 새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많은 물의를 빚음.

91년 파업 당시 12명을 해고하였다. 당시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지급 문제.

SPSI(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지부 설립. 이후 3번 다시 파업.

92년 파업: 세 여성 노동자를 주동자들이라 하여 라탄(등나무회초리 rattan)으로 때림.

93년 2회에 걸친 파업: 노조설립 준비위원회 간부들을 경찰에 넘김, 집행유예로 나옴.

93-94년 사이 74명 해고. 당시 요구사항은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보장.

95년 당시 74명의 해고, 출산휴가, 92년 파업 주동자로 지목된 세 여성 노동자 등의 문제로 법정에 상정된 상태. SPSI 설립금지.

전반적인 환경: 기도시간(이슬람교) 주지 않고, 사장이 기독교인이라 채플(예배)시간 강요. 때리고 뺨치고, 물리적으로 방어하면 같이 싸우는 등의 열악한 환경.

2) 1995년 현지 조사, 노동운동가, 무니르(Mr. Munir, LBH-Surabaya)와의 면담, 이하 현지 조사는 『인도네시아 투자 한인기업 노동문제 조사 면접기록 1995-1998』에 수록

<사례 2 : PT, ELtri Indo Footwear (前 성화)³⁾>

브랜드 :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내수용 STARMON

▶ 92년 9월 파업 시작. 6500명 전원 참석하였다. 당시 요구 조건은

- 1) 임금인상: 노동법상 1일치 임금이 2500루피아였는데, 성화는 식비로 400을 빼고 2100만 지급하였다.
- 2) 생리휴가 보장과 버스 증차(총 인원 6500명인 회사에 2000명만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 40대 밖에 없었다. 4500명을 수송할 차량 부족)
- 3) 노조활동자유 보장: SPSI 위원장을 회사가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 위원장 교체를 요구.
- 4) 회사 안에 노사의 권리가 적힌 책(사규인 듯 함)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

▶ 파업 당시 5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전 사원이 파업에 참가했는데, 외부인이 들이닥쳐 회사기물을 파괴했고, 그래서 경찰과 군대가 출동해 잡혀갔다. 이들이 아무 근거 없이 주동자를 골라서 회사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해고되었고,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고발했는데 노조 쪽이 승소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이를 뒤집어 2년이 넘도록 해고 상태였고, 노동부장관을 고발한 소송이 95년 당시 2심에 올라가 있었다.

▶ 파업의 경과

92년 9월 28일, 6500명 전원이 참가하여 파업 시작. 6-12시까지 파업. 12시 이후에 논의 시작. 91명의 대표선출,

29일: 나머지는 집에서 기다리고 대표 91명과 회사 대표, SPSI 지역 대표, 인력부가 합의.

30일: 작업 재개

3) 1995년 현지 조사, 3명의 해고 노동자 Cicih(남, 31세, 4년근무), Sugeng(여, 27, 3년), Daryati(여, 25, 4년) 인터뷰

이후 경찰이 하루에 3명씩 데리고 가서 40명 까지 조사, 93년 1월 회사는 주동자라고 지명된 사람 해고. 해고자 중 3명은 파업 당시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은 주동자가 아니라고 주장.

▶ 일반적 노동환경

- 1) 8시간 일, 3교대 07시-15시, 15시-23시, 23시-07시, 4시간 일, 한 시간 휴식.
- 2) 남녀 구성비 20:80으로 여자가 많다. 성희롱은 없다.
- 3) 프레스에 손을 잘리거나 하는 사고는 많다. 이는 보험을 들면 된다. 사고가 나면, 퇴원까지는 병원에서 책임지지만 그 후로는 없다. 보험은 입사 뒤 한 달 후 보험을 들거나 3개월 이후에 난 사고에 한해 그 혜택이 적용된다.
- 4) 맞기도 하고, 그러면 여자들은 울고,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러 불량품을 방치하고 한다.
- 5) 감독관은 현지인과 한국인. 한국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잘 낸다. 쉬는 시간에 기도하면 새로 온 한국 감독관은 사람들을 발로 차곤 했다.

▶ 노동자들의 일상적 저항 : 조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불량률을 높여 괴롭힌다. 그리고 이민국에 고발한다. 그러면 한인 관리자들이 3개월에 한번씩 재심사 받을 때 고생하게 된다.

<사례 3 : PT, Pratama Abadi⁴⁾>

Serpong지역의 나이키운동화 생산업체.
주문한 색이 틀려 미국 본사에서 사람이 왔었다. 한국인 관리가 화가

4) 1995년 현지 조사, 노동자 Riz 인터뷰 (6개월 전에 이 회사를 다니는 친구로부터 회사 얘기 들음)

나서 욕을 하며 때렸다. 그는 신발 바닥창으로 6명 남자의 머리를 한 대씩 때렸다. 사소한 일이었기에 신문에 나지 않았고 항의도 없었다. 문제는 욕을 자주 한다는 것. 인니어를 할 줄 알면서 한국인 남자 관리 는 욕을 한다. 화가 나면 신발 바닥창으로 여자 노동자들의 엉덩이를 친다.

사전 연락 없이 하루라도 결석하면 해고된다. 2교대 근무인데, 근무시간 중에 자면 바로 해고되고, 졸면 관리자가 화를 낸다. 유니폼은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이름표는 없다. 복장에 대한 규제는 없고, 주로 이슬람식의 옷을 입는다. 머리 쓰고 옷 입고, 화장실 출입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갈 때는 카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금 문제로 2번의 파업 : 92년 1주일, 93년 3일. 전 직원이 참여했었고, 기물 파손은 없었다. 단지 건물에 밥을 던지는 정도. 파업 기간 내 일하지 않았고, 봉급도 낮았다.

15세가 최연소 노동자. 성폭행은 없다.

<사례 4 : PT, Dasa Busana Sakti⁵⁾>

일반적으로 한국회사들의 월급이 적다. (하지만) 중국, 인도네시아회사 보다는 많다. 무엇보다 문제는 비인간적 대우와 거친 행동. 홍콩인 관리자들보다 더 심한 한국인관리자(인도네시아기업)의 악행이 문제다.

<사례 5 : PT, Kolon, Korina 1공장⁶⁾>

5) 1995년 현지 조사, 여성 노동자 인터뷰

6) 1995년 현지 조사, 여성노동자 2명(Nurwidayati, 2년 근무, Sriwartini, 4년 근무) 인터뷰

주요 생산품: 자켓

95년 1월부터 Korina 1,2 로 분리

조사당시 500-600명, 90%가 여성노동자, 감독관 한국인 남성3, 여성1

▶ 사내 보건소가 있지만 치료 받으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허가증도 잘 주지 않는다. 바쁘면 회사 맘대로 주지 않는다.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도 허가증을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

▶ 기도시간은 12시부터 1시 사이, 3시-3시 30분 그대로. 휴식은 따로 없다. (근무시간 : 오전 7:20-17:20) 근무 시간이 넘으면 문을 잠가 버린다. 시간외 근무 때에는 18:00-18:30 사이에 밥/기도/휴식을 한꺼번에 해결한다.

▶ SPSI 의장을 회사에서 임명한다. 노동자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켓 하나가 없어져서 한 노동자가 의심을 받았다. 한국인 여자 관리가 목표량과 일에 대해 트집을 잡아서 그 노동자는 화가 나서 이들을 무단결근했다. 3일째 회사에 갔을 땐 이미 해고된 뒤였다.

▶ 여자 한국인 관리가 특히 말을 거칠게 한다. 인니어를 할 줄 알면서도 한국말로 화내고, 이는 노동자에게 욕으로 들린다. 서명담당자라 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그녀에게 가야 하는데, 받기 힘들다.

▶ 화장실은 여성용이 6개이지만 3개는 고장 난 상태라 조사 당시 수리 중이었다. 여성용 화장실의 개방시간은 오전 9:00-9:30, 12:00-13:00, 3:00-3:30. 이 시간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남성용 화장실은 2개이고 이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화장실 허가증 같은 것은 없다.

▶ 건의함 : 화장실 사용시간 연장, 청소 등을 요구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

▶ 파업

1월에 2번 : 반나절 파업.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휴가 비용이 당시 파업 쟁점이었다. 이는 파업 후 개선되었다. 2일치가 돈으로 지급되었고, 1년

중 12일의 휴가가 돈으로 계산되어 2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었고,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월에 1번 : 당시 쟁점은 통근버스 사용. 일당을 3,800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결.

- SPSI 의장은 회사에서 임명하고 교육은 엔당(YBM;소규모 노동그룹, 교육담당자)에게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받는다. 파업 당시 해고자는 없었다.

▶ 식사 : 점심제공, 질이 나빠 대부분 밖에 나가서 사서 먹는다. 1년 중 한달 금식기간에는 점심을 돈으로 준다.

▶ 산업재해 : 미싱기에 찢리는 정도. 큰 사고는 없었고, 대부분 보험 처리된다.

<사례 6 : PT, Stergantek⁷⁾>

생산품 : 자켓, 한국인 소유.

말을 거칠게 한다. 한국인 관리자 남성 1명, 여성1명이다.

통근버스 사용료로 임금에서 600루피아를 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하루 400벌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량을 제시. 300장 밖에 못했을 경우에는 화를 낸다.

그간 파업은 없었는데, 이는 그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었다는 뜻.

지각하면 수당이 없다.

<사례 7 : 카엘마스⁸⁾>

약 400여 명의 노동자(주로 여성노동자)를 채용한 한인의류제조업체.

▶ 파업.

1998년 7월 파업. 첫째 날 : 100명, 둘째 날: 약 40명, 셋째 날: 약 15명

7) 1995년 현지 조사, 여성노동자 1명(기혼, 3개월 근무)

8) 1998년 현지 조사, 여성노동자 1명 (미혼, 28. 카엘마스에서 4개월 근무)

정도 참여

▶ 요구 사항: 최저임금 준수와 출산 휴가 인정.

파업을 주도한 인물은 없었으며 외부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았다. 파업 첫날 6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사측과 대화를 시도했다. 한편 회사 측은 이를 물리력으로 강제 진압하지는 않았다. 파업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아 불법 파업이어서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파업을 종결했다.

▶ 카엘마스 회사에 노조는 없다. 기본 일급은 일당 식대와 교통비 포함해서 5400루피아.(기본월급 5400×26). 잔업(오후 3:30부터) 수당은 시간당 800루피아. 일요일 특근 수당은 따로 없이 기본급 5400루피아와 같다. 2주에 한번씩 급여 수령. 무단결근하면 일당을 못 받고 2번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된다. (한편, 법규에 의하면 6번 이상 무단결근해야 자진퇴사로 간주된다고 한다.)

통근버스가 없어 매일 교통비로 1000루피아를 쓴다. 점심도 제공되지 않는다. 400여 명의 남녀 노동자를 위한 화장실은 5개.

현재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오전 7:15에 시작, 주문이 많을 때는 오후 9시까지 일한다. 잔업과 휴일근무 모두 거부할 수 없다.

이 회사의 경우 특이한 점은 400명의 노동자 중 약 50%가 계약직이다. 처음 3개월간 근무 후 재계약 체결. 일년 정도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계약의 지속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로 일한다.

<사례 8 : 인도네시아 보생기업⁹⁾>

▶ 사유 : 노동자들의 근무와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현직 경찰 두 명을 관리자로 채용, 이로 인해 파업 발생.

9) www.migrant.or.kr/cgi-bin/cz (2003년 10월 방문)

▶ 국제적 대응 : 세계 유명 스포츠화(아디다스) 생산 노동조건을 감시하는 국제단체들에 의해 항의를 받음.

<사례 9 : 인도네시아 코오롱¹⁰⁾>

▶ 사유 : 1996년부터 최저임금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을 부서 이동, 정직 신청, 해고로 회사 측에서 대응. 해고된 노동자들 현재까지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생리휴가를 원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근무강요. 욕설.

▶ 국제적 대응 : 인도네시아 인권기관 국제단체 및 한국 코오롱 본사에 항의서한 조직. 2000년 해고된 노동자 한국 방문.

<본 백서 VI. 해외한국기업에 대한 정부대응 연구 편에는 2003년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 내용이 실려 있다.>

2. 방글라데시

<사례 1 : 영원기업¹¹⁾>

▶ 97년 7월 97명의 노동자 해고, 세계적인 스포츠생산업체로서 수출자유지역 (치타공) 최고로 사업이 번창을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고로 무시하고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경찰에 체포, 해고됨.

10) www.migrant.or.kr/cgi-bin/cz (2003년 10월 방문)

11) www.migrant.or.kr/cgi-bin/cz (2003년 10월 방문)

▶ 국제적 대응: 유럽의 깨끗한 옷 입기 운동 (Clean Clothes Campaign)은 전 세계에 영원기업의 노동분쟁 속보로 전달하고 항의서한 보내기 조직. 영원기업 노동자 유럽 방문, 한국기업 문제점 폭로, 시민단체들의 연대 대응 촉구.

[참고자료: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투자관계¹²⁾]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에 의하면, 2002년말 기준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는 총 190건, 금액 기준으로는 305백만불이고, 50여개 이상의 봉제 에이전트가 개인사업 형태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1980년 최초 투자진출 이래 1990년대 중반 피크를 이루었던 한국의 방글라데시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정체되었으나 1999년 들어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출가공지역(EPZ)에 대한 나라별 투자 현황을 볼 때 2002년 한국은 총투자의 32%인 1732백만불을 투자하여 최대 투자국이며 약 52천명의 노동력을 고용, 460백만불의 의류를 제조, 수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영원무역의 경우 연간 수출 규모가 2억불을 상회하여 단일 기업으로서는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 기업이다.

업종별 투자 진출은 주로 방글라데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봉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봉제 연관 분야인 패딩, 지퍼, 염색, 방직, 포장재료 등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통신, 금융 및 기타 제조업 등 진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 수출가공공단 조성사업)

방글라데시 투자 진출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의 영원무역이 약 5억불을 투자 하여 추진해 온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프

12) 대한무역진흥공사 인터넷 자료실.

로젝트는 '96.5월 당시 수상 Khaleda Zia의 한국 방문 시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에도 포함되었다. 영원 측은 1999.10.30일 하시나 수상과 주요 각료, 그리고 한국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수출 가공공단 내 노조활동 허용 문제)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겪어 온 수출공단 내에 노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2004.1월부터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2001.1.31일자 관보에 게재된 방글라데시 노동부 결정은 "1980년 수출공단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EPZ) 내 근로자들은 2004.1.1일부터 '모든 적법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3년 말까지는 공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동자복지위원회(Worker's Welfare Committee)'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글라데시는 1980년대 후반 수출산업 육성 목적으로 수출가공 공단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단 내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 노동 관련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유보해 왔다.

이와 관련, 수출공단관리청(BEPZA)에 따르면 회사내 WWC는 사용자측과 회사측이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금 이외 모든 사항을 협의 가능토록 하였다. EPZ 내에는 노동중재위(Labor Tribunal)를 두어 노사간 분쟁을 중재하며, 동 위원회는 노동자측 2명, 사용자측 2명, 전직판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다카, 치타공, 코밀라 3개 EPZ에 총 \$547(2002.8월 현재)백만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84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연간 수출액만도 약 \$11억로 국가 총 수출의 18%정도이다. 전체 EPZ 투자액 중 한국의 투자가 32%로 가장 많다.

3. 스리랑카

3-1. 한국의 투자 상황¹³⁾

스리랑카에 2000년 기준 한국은 113건 약 2.19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약 140여개 기업이 진출하였다. 한국은 고용 면에 있어서는 對스리랑카 최대투자국(약 5만 명 현지인 고용)이다.

투자 금액 면에서 싱가포르, 호주, 영국에 이은 4위 투자국이다. 2003년 현재 투자승인 건수 103건, 총 투자액 RS(스리랑카 루피) 10,528백만, 총 고용인력 약 54,000명 수준이다.

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對스리랑카 투자는 '97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투자 증가세를 보였으나 IMF체제 이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고 2002년 이후 상당수 철수하여 2003년 현재 약 70여 개 사가 있다. 주요투자업종은 스리랑카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가방, 의류봉제 등 노동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3-2. 한국기업에서 인권현황

<사례 1 : 스리랑카 에이스브리지¹⁴⁾>

① 스리랑카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섬유회사. 스웨터 등 생산. 호주, 방글라데시에 수출

13) www.kotra.or.kr

14) www.migrant.or.kr/cgi-hin/cz (2003년 10월 방문)

② 분쟁사유 : 체불임금, 근무 시간 중 자유로운 대화금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의 물 마시는 행위금지, 산업재해 보상제도 부재.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노동자위원회 창설 규정 불이행. 1998년 2월 13일 파업 후 노동자 10명 구속, 23명 해고. 3월 3일 104명 추가 해고. 이후 노동자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강제서약 요구.

③ 노동환경

정부가 정한 하루 최소한의 임금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공장 측은 무리한 하루 목표량을 지키도록 강요하고(예, 보통 한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분량은 섹션당 80-90장, 그러나 회사의 기준은 120장)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좀더 환경이 안 좋은 파트로 옮겨 6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목표량을 달성 할 때까지 야근을 하게하며 그럼에도 달성치 못할 경우에는 해고된다. 이 경우 자신의 목표량 달성을 위한 야근에는 수당도 주어지지 않는다. 야근은 사전에 공고되지 않을 때도 많을뿐더러 매우 적은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밤 12시까지도 지속된다. 화장실에 가려면 이름을 쓰고 체크를 한 뒤에 가야하며 공장 내에서는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물도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외에는 마실 수가 없다. 이는 스리랑카처럼 더운 나라에서는 무척 힘든 일이다. 일이 시작되면 공장에서 나올 수 없으며(감금노동) 5분을 늦으면 30분 어치의 임금을 제하기도 했다.

별다른 안전장치가 되어있지도 않고 노동조건 또한 매우 열악하므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잦지만 산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임금은 한달에 2500루피(미국달러 39불, 한국 돈 5만 5천 원)이고 일년에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280일을 일하고 난 후부터 4일마다 하루씩 쉴 수가 있다. 일요일 근무를 포함해서 한 달 동안 모두 일하면 4일간의 임금 혹은 휴가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2000년,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

한 참가자들은 그들이 노동자들을 조직했다는 활동으로 인해서 한국기업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④ 해고되기까지의 사건들

97년 7월 공장의 7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목표량을 수행하지 못해 정직을 당했다. 이일로 인해 3일간의 파업이 있었고 그 결과 관리인들은 정직을 취소하고 노동위원회를 만들도록 허용했다. 원래 노동위원회는¹⁵⁾ 노동자의 대표를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인과 만나 노동현안을 협의하는 조정체로 94년 새 정부 수립 후에는 모든 공장에서 만들어지도록 법으로 규정했으나 지켜지지 않다가 97년 당시에나 만들어졌다.

97년 12월부터 공장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대부분 월세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은 3일간 휴업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체불은 1월, 2월에도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공장 측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했으나 한국인관리인이 강제로 일할 것을 강요했고 싸움이 벌어져 노동자와 한국 기술자 한 명씩이 부상하고 스리랑카 노동자 10명이 구속되었다. 며칠 뒤 구속자 10명을 포함한 23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관리자들은 사측의 요구안을 만들어 서명을 강요, 서명하지 않은 104명의 노동자들을 다시 추가로 해고하였다.

⑤ 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요구사항

- 1) 나는 해고된 23명의 노동자들이 복직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나는 관리인들이 정한 급여일에 동의한다.(임금이 늦어져도 항의하지 않는다)
- 3) 파업하지 않는다.

이는 임금이 늦어져도 항의나 반발 없이 계속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15) 한국의 노동조합과 비교해 단체 협상권이 없다. 단지 권고나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것으로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어떠한 반발도 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스리랑카 노동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노동부장은 그 공장 관리인에게 127명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고 촉구서한을 보냈으나 공장 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노동법원에 이 케이스를 보냈지만 법원의 결정은 2-3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에 스리랑카의 상황을 알리고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해 연대사업을 펼치기 위해 2000년 당시 한국방문을 결정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 중 몇몇은 도급제나 일용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들 127명 해고 후 노동위원회는 없어졌고 그동안의 투쟁성과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⑥ 국제적 대응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연대행동 및 항의서한 조직. 에이스브리지 노동자 대표 한국방문(1998년 8월). 한국에서는 참여연대가 기업에 공개질의서 보냄.

<사례 2 : 노스폴 스리랑카¹⁶⁾>

① 분쟁 원인: 공장 폐쇄시에 지불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회피를 목적으로 근무일수 삭감, 상여금 미지급 등의 수단으로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유도.

② 회사 개요: ㈜진웅

-노스폴 스리랑카의 전신은 1979년 서울 근교에서 작은 봉제업체로 출발한 ㈜진웅이다. 진웅은 우리나라에 스포츠 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기 전인 1979년 3월에 설립, 수출전문기업으로 출발했다. 회사설립 5년 만에 1천만불 수출탑과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그 2년 후인 1986년에는 2천만불 수출탑과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989년에는 한국 주식시장

16) 만원계 자료실 www.10usd.net/bbs (2003년 10월 방문)

에 상장되었다. 그 후 성장을 거듭하여 1990년에는 5천만불, 1995년에는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세계적 유통업체인 월마트로부터 1997년과 98년 연이어 '최우수공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웅은 레저용 텐트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꼽혔다.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레저용 텐트 3개중 2개 정도는 진웅이 만든 것이라 보면 된다. 1998년에는 세계 텐트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의 점유율은 65%에 이르렀다. 그 결과 1억 6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자회사 노스폴(NorthPole)의 설립과 지누스로의 사명 변경

진웅은 1999년 4월 해외 법인을 통합한 지주회사인 노스폴을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했다. 영업양도를 위하여 진웅은 중국, 스리랑카, 홍콩, 일본,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의 지분과 미국 현지법인의 자산 및 부채, 산업재산권 및 수출쿼터의 실질적인 사용권한 등을 신규로 홍콩에 설립한 법인인 노스폴에 이전했다. 그 뒤 노스폴의 지분을 해외 투자자에 양도한 후 추가증자를 유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노스폴의 최대주주는 미국의 직접투자전문회사인 워버그 핀커스사(E.M.Warburg, Pincus&Co.,LLC 설립당시 지분 57%)이며, 지누스는 노스폴의 2대 주주 회사(2003년 1월 8일 현재 27%)이다. 노스폴사는 현재 세계적인 레저 스포츠용품 회사로 성장했으며 자동차 부품 등 연계 상품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2001년 매출액이 3억 달러, 이익이 2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2000년, 진웅은 사명을 (주)지누스로 바꾸고 인터넷 벤처 기업 투자를 시작으로 광통신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디지털 중심의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지누스는 노스폴에 각종 레저, 캠핑 용품의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진웅의 설립자이기도 한 지누스의 이운재 회장은 노스폴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 글로벌(Forbes Global)"(아시아판) 2002년 4월 1일자에 커버스토리로 다뤄지기도 했다. 그의 성공사례는

2002년 가을학기부터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MBA 과정의 정식교재로 채택됐다.

-노스폴 스리랑카(NorthPole Lanka (Pvt.) Ltd.)

노스폴 스리랑카는 1992년 진웅의 현지법인(Jinwoong Lanka Ltd)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노스폴의 스리랑카 현지법인으로 스리랑카 Ekala 지역에서 수출용 가방과 텐트를 제작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과 2001년 회사가 풀가동 되었을 때는 Ekala에 4개의 지사가 있었고, 텐트와 가방 주문이 넘쳐 14개의 자회사로 주문을 넘기기도 했다. 2002년 사측은 지사를 하나하나 닫았고, 모든 노동자들을 Ja-Ela의 템플가(Temple Road) 21번지로 모았다. 현재는 지사나 자회사가 없다.

-이름 : NorthPole Lanka (Pvt.) Ltd.

-주소 : 21, Temple Road, Ekala, Ja-Ela, Sri Lanka

-전화 : (941) 233256, 236028

-팩스 : (941) 236027

(출처: <http://www.northpoleltd.com>)

③ 노스폴 스리랑카의 공장폐쇄 위기

2001년 말, 회사는 1년치 상여금을 4월과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2001년 12월 18일 갑자기 약속을 철회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했다. 사측과의 협상 후 2001년 12월 27일,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다시 폐쇄되었다. 정부의 영향력 행사로 다시 공장을 열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시되었다.

이런 상태에서도 사측은 계속 생산 주문을 접수했으며, 2002년 9월 이래로 경영진은 월급의 50%를 지급하는 순환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파퓰한 보상 없이 일자리를 떠나라는 요구로 보인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가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2002년

4월 설날에, 보너스를 약속하지 않았던 사측은 갑자기 약 16달러에 달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운동에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위로금 없이 회사를 떠났다. 사건 발생 전에 1,2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된 상태였지만, 2003년 1월 현재 3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장 폐쇄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2002년 10월부터 사측은 매월 보름치(월급의 50%) 월급을 지급하면서 서서히 공장을 폐쇄해갔다. 10월 26일, 첫 번째 노동자 그룹이 돌아왔지만, 5일간만 일하고 더 긴 휴가 처리를 당했다. (순환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기간과 인원이 달라지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보름치 월급을 받으며 서서히 공장에서 쫓겨 나고 있으며, 2003년 1월 남아있는 300여명의 노동자들은 적은 보상금의 희망퇴직을 강요당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대표들에 대한 사측의 사퇴 압력이 가해졌다.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 계획했던 주요 인물들이 공장을 떠나면서, 노조 건설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갔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건설에 무관심한 한편, 또한 그들은 밤늦게 까지 일하고 어떤 연대 행동을 하기 위해 모일 수가 없다.

2002년 2월, 경영자들은 4명의 노동자들이 원료를 훔쳤다는 명목으로 허위 고소했고, 경영자들과 공모한 경찰은 그들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은 절도죄였는데 4명 중의 1명만이 그 사건과 연루됐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폭행사건에 관해서는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가 제기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이미 담당 경찰을 전근 시켰고 피해자의 신원증명을 요구했다.

④ 사측이 공장을 당장 폐쇄하지 않은 이유

사측은 시간을 끌면서 공장이 문을 닫거나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이 자진해서 퇴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회사는 정부 감독관 (commissioner)에게 알려야(refer to)하며, 노동자들과 협의(discuss)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현 정부는 의회에서 공장폐쇄법(Act of Termination)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소유주와 투자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공장이나 사업체를 자유롭게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은 의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어,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측은 노동자, 그리고 나중엔 관리자까지 괴롭혔다. 2003년 초 관리자들도 순환휴직과 보름치 월급을 받는데 동의하는 각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서명을 거부한 관리자들도 출근을 거부당했으며 이 사건은 Assistant Labour Commissioner에 맡겨졌다. 스리랑카 지사 대표와 관리자 대표의 협상에서 사측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 사측이 하고 있는 것은, 관리자들과 노동자들 수를 미리 줄여서 회사를 정리할 때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당분간 저임금의 퇴직금(gratuity)없는 계약직 노동자(contract labour)라도 채용했을 것이다. 요즘 스리랑카의 경향은 저임금의 계약직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⑤ 최근 상황과 노동자들의 요구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단지 15일분의 봉급만을 인정하였다.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협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는데, 노동자들이 15일분 봉급증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어떠한 봉급도 전혀 받지 못할 것임을 통보받는다. 2003년 1월 10일 월급날 후에 노동자들은 회사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과 보름치 급여를 받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서명을 강요당했다. 노동자들 중 몇몇은 지난 3개월 동안 회사 관리자들이 전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서명해 왔다.

경영자들은 스스로 퇴사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공장을 폐쇄하려 하고 있는데, 공장이 폐쇄된다면,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감원되거나 노동자들이 없다면 그들은 쉽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남은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바라고 있다. 일단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공평한 배분도 가능하고 원래의 복지기준과 보너스가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노스폴 스리랑카가 정 스리랑카를 떠나려고 한다면 떠나도 좋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물론, 그 전에 스리랑카 법에 따라 떠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보하고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합의해야 할 것이다.

<사례 3 : 영지 앤 원즈 랑카 (Young Jee & Ones Lanka)¹⁷⁾>

회사명: Young Jee & Ones Lanka

분쟁 원인: 갑작스런 공장폐쇄, 일자리 및 고용기금의 수여 혜택 상실

보도 :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사장 : 송영석 Young Seok, Song (Y.S. Song)

투자자의 공식 주소: Aniyakandewatte, Nagoda, Kandana

주 생산품목: 인조섬유로 만드는 조화 생산

① 회사 개요

인조 섬유로 조화를 생산했던 'Young Jee & Ones Lanka'는 1991년 9월 800명 규모의 고용인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송영석 사장이 1991년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한국인 동업자 최모 씨와 함께했다. 하지만 1995년 분리하여 최모씨는 다른 공장을 원 공장 근처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② 전체 상황

회사가 노동자들과 어떠한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공장 문을 닫는 바람에 57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었다. 고용주는 스리랑카를 떠난 뒤 공장 폐쇄 사실을 팩스로 알려 왔다.

공장의 비밀폐쇄가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공장에 남아 있었던 노

17) www.ahrchk.net/ua/mainfile.phn/2003/439/ (2003년 10월 방문)

동자들은 57명이었다. 당시 이 회사는 개별 피고용인에게 중앙은행이 지급했어야 했던 피고용인 안정기금 EPF(Employees Provident Fund)과 피고용인 신탁기금 ETF(Employees Trust Fund)에 450,000루피에 달하는 지불금이 미납된 상태여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기금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공장은 실제로 2003년 4월 4일부터 문을 닫은 상태였다. 몇 달 전에 관리인은 스리랑카를 떠났고, 공장 폐쇄에 대한 고지를 팩스로 알려 왔다. 이것은 합법적인 방식의 사안 처리가 아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얻고자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외국인투자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투자위원회(the Board of Investments) 등의 관련 당국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스리랑카 법에 따르면, 만약 공장을 폐쇄할 때에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폐쇄 전에 예정 폐쇄 날짜와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일 자리를 잃은 57명의 노동자들 이외에 갑작스런 공장 폐쇄의 영향을 받고 있는 100여 명 정도의 하청 계약자들이 있다. 이들은 그들의 비용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쇄 진행 절차는 송사장의 친구인 그 지역 고참 경찰관(Mr Priyantha Jayakody)에 의해 전달되었다. 이 고참 경찰관은 현재, 차량 같은 회사 소유의 재산들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를 팔기도 한다. 심지어 폐쇄 전에, 그는 받아야 할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며 차량 몇 대를 처분하기도 했다.

4월 4일, 그는 3개월 치 월급을 지불했다. 그는 공장에서 차량 2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생산에 이용되었던 동력기, 통들(barrels) 등을 처분했고 심지어 원재료까지도 처분했다. 해고된 노동자들 몇 명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노동자들을 협박했으며 그가 전 사장인 한국인 친구의 전부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다. 노동자들은 이 경찰관의 협박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을 쉽게 할 수 없다. 이 공장에서 11년 동안이나 일했던 노동자들은 현재 그들의 EPF와 ETF의 혜택 없이 지내며, 퇴직금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사례 4 : 파인랑카 (Fine Lanka)¹⁸⁾>

① 회사 개요

‘파인랑카’는 스리랑카 카투나야크 수출자유지역(Katunayake FTZ)에 위치한 한국인 소유 기업이다. 이 회사는 가방을 생산하고 본사는 한국에 있다. Fine Lanka Luggage (Pvt) Ltd.는 한국 본사에 있는 자료와 미국 본사 자료에 의하면 가방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스리랑카에서 1,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85%가 여성이다. 본사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

② 원청 브랜드

Federated Department Stores (Charter Club & Metropolis labels);

Sears Roebuck (Forecast Mendocino);

J.C. Penny and Co (Protocol and Support Tech);

R.H. Macy & Co Inc;

High Sierra Sports Co (High Sierra),

그 외 Travel Gear, Atlantic, Jeep and Sports Plus.

③ 인권 상황

99년 9월 4일 1,100명의 모든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났고 그 후 공장이 폐쇄되었다. 이러한 폐쇄 조치는 하루 파업 이후에 단행된 것인데, 이 파업은 수출자유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공장 중에서 처음 일어난 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은 노조위원장과 노동자위원회의 다른 회원들에 대한 부당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에 참가했다. 이들 활동가에

18) Clean Cloth Campaign 뉴스레터 2002년 6월 15일자, 한국 여성노동자협의회 국제연대 소식, 스리랑카 수출자유지역 노동자 위원회와 TIE-Asia의 연대 성명

<http://www.kwwnet.org/english/wwomen/ww23/23-5.htm>

(2003년 10월 방문)

대한 부당 해고는 소송으로 날조되었는데,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 활동가들에게는 답변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경영진들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노조는, 회사 측이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표하려는 이들 활동적 노동자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 3월, 858명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공장은 문을 닫았다. 회사는 지역 정치가의 도움으로 2001년 5월 다시 문을 열었고, 비노조성향의 노동자 소수와 원래 직원이었던 노동자 60명, 노조에 가입했었던 노동자들을 엄격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고용했었다. 당시 회사 측이 제시한 계약 조건에는 공장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과 실습시간의 인정, 그들이 공장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노조 활동가들과 노조원을 해고하고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관리인들 사이의 대립을 끊임없이 부추겨왔다.

파인랑카의 노동자들은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며 매일 아침 투쟁을 전개했다. 약 25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에 보여 ‘부당 해고 철회’를 외쳤다. 아침 투쟁 후 이들 노동자들은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이들은 노동활동가들에게 한국 본사 대표자에게 자신들의 요구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었다.

④ 한국에서의 대응

파인랑카의 노동자들을 사연을 들은 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는 한국 본사와의 만남을 시도했었는데, 사측에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며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2002년 1월 까지 파인랑카 사안은 중재 중이었다.

<사례 5 : 코스모스 매키 (Cosmos Macky Branch)¹⁹⁾>

① 회사 개요

스리랑카의 카투나야크 수출자유지역(Katunayake FTZ)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모스 매키는 한국인-스리랑카인 합작회사이다. 이 회사는 Cosmack이라는 상표를 달고 수출되는 스키복 등의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② 인권 상황

연간 보너스 지급전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파업 직후, 파업 주동자를 포함한 18명의 노동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전근되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전근조치에 항의하며 다시 파업을 했었다. 동시에 그들은 지부 노조를 만들고 경영진에 알렸다. 경영진은 새로 만들어진 지부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조 조합원과 관리들을 위협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2명의 인원을 고용했다. 2명의 주요한 노조 책임자가 전근되었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62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2002년부터 공장 안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감시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으며, 대부분 오랫동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사직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지부 노조는 거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례 6 : 조이 랑카 (Joy Lanka)²⁰⁾>

조이랑카는 장난감을 만들던 제조업체이다. 조이랑카는 한 때 가방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했었고, 이 때 175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었다.

19) CleanClothCampaign 뉴스레터 2002, 6, 15

20) 한국 여성노동자협의회 국제연대 소식

www.kwwnet.org/english/wwomen/ww23/23-5.htm

(2003년 10월 방문)

하지만 노조가 조직되어 있었고 모든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조의 투쟁 덕분에 복직될 수 있었다. 다시 회사는 생산을 완구로 전환하였고 이후 110명의 노동자만이 회사에 남고 나머지 인원은 해고 되었다.

[참고자료 : 스리랑카의 수출자유지역(EPZ)²¹⁾]

대부분의 수출자유지역²²⁾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스리랑카의 EPZ도 외국기업에게 자유무역이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로부터 보조된 토지와 빌딩의 사용, 낮은 관세, 중간상품과 원료의 무제한 수입과 같은 특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스리랑카에서 수출자유지역과 유사한 특별 구역은 현재의 EPZ (Export Processing Zone) 이외에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해왔다.²³⁾ 1978년 Katunayake에 스리랑카 첫 번째 EPZ가 설립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확장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산업정책으로서 개방경제정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1995년에는 단지 4곳의 EPZ이 있었지만, 2000년 10월, 14곳으로 늘어났다. 이 곳에 유치된 공장들은 스리랑카 정부의 일종의 특별 투자법안에서 만들어진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서 부여된 특권에 의해 운영 중이다.

21) A.F. Rabbani 'Social Impact of Export Processing Zone in Asia' Tokyo, 만원계 자료실 www.10usd.net (2003년 10월 방문)

22) 수출자유지역(EFZ), 수출가공지역(EPZ), 자유무역지대(FTZ) 등이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23) 문제가 된 노스폴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Ekala 지역의 산업지구인데, 이는 1962-63년에 시작되었고, 대개 지역 산업 개발을 위한 35개의 중소기업에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책이 변해감에 따라, 투자위원회(BOI)에 의해 유치된 공장들이 세워졌다.

▶ 주요 투자국은 홍콩, 벨기에, 노르웨이, 한국, 네덜란드, 태국, 파키스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인도, 스웨덴, 미국, 캐나다, 타이완, 싱가포르, 스위스, 레바논, 바레인, UAE, 아일랜드, 러시아, 중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중 한국의 규모가 가장 크다.

▶ 노동집약적인 의류 관련업이 주류를 이루고, 세라믹 식기류, 가죽제품, 장난감, 보석류, 신발, 컴퓨터 부품, 전자제품, 그리고 보석 세공업과 조화 공장 등이 있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제시하는 EPZ 설립의 이유이다.

- ㉠ 신상품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
- ㉡ 품질 개선 및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도입으로 해외 수출의 새 판로 개척
- ㉢ 국내 모든 상품에 대한 명성을 높임으로써 수출가능성 증가시킴
- ㉣ 교육받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 ㉤ 생산 관리 및 노동기술 면에서 지방 인력의 질을 향상시킴
- ㉥ 지방으로부터 원료, 설비, 기계부품, 또는 포장 재료 등을 들여오므로써 지방과 도시의 연대를 공고히 함
- ㉦ 하청 공장이나 부속 업체들의 성장을 부추김
- ㉧ 지역 내 외국 전문가들의 지도 및 해외 연수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전파
- ㉨ 미개발 지역의 개발

▶ EPZ 설립에 대한 정부의 기대

- ㉠ 고용창출 ㉡ 기술전파 ㉢ 외화획득
- ㉣ 경제성장 ㉤ 지방산업과의 연계

▶ 스리랑카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문제점

1.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착취 -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

- ㉠ 3,000스리랑카루피(40달러)의 저임금. 여기에 각종 공제가 뒤따름

- ㉡ 젊은 여성들에 대한 하급 관리 및 감독들의 학대, 노동자들의 공헌은 흔히 무시되고 강간, 해고, 이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남
- ㉢ 예측 불가능한 수요의 문제가 또 다른 착취를 낳음. 공장 매출이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공장 노동자들의 입지는 급격하게 추락
- ㉣ 이 지역에서의 업무는 거의 100% 단순 노동, 속도 중심의 업무, 긴 노동시간, 반복적으로 세분화된 작업
- ㉤ 시간 외 수당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인센티브의 조건에는 매일 출근과 일상 업무량의 초과 달성이 포함됨
- ㉥ 이곳의 공장들은 편의 시설이나 위생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함. 노동자들에게 화장실 출입용 카드 발급
- ㉦ '노동만족'은 많은 노동자들의 꿈이지만 이곳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실현 불가능.
- ㉧ 노동자들은 계약상의 휴가를 물품 생산량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때로는 긴급한 출하 일자를 맞추기 위해 휴식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기도 함.
- ㉨ 어떤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게 된 추가 수입에 대해 행복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 ㉩ 하급 관리자들의 계략에 의해 순진한 노동자들이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력의 착취로 이어짐
- ㉪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만든 물건이 어떤 상표의 것인지, 어느 나라로 수출되는지 알지 못함.
- ㉫ 노동자들은 종종 이름이 아닌 번호로서 인식됨
- ㉬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투자 지역을 옮김. 이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안겨 줌. 투자자들의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인해, 스리랑카 투자위원회의 보상금을 마련해야 함.

2. 주택, 기숙사 시설

기숙사들은 이미 포화 수용 상태이고 시설 면에서 대단히 열악하다. 1978년 Katunayake 지역에 처음으로 공장이 설립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오로지 고용 기회의 창출이라는 과업에 대해서만 몰두해 있었다. Katunayake와 Biyagama 지역에 위치한 첫 번째 자유무역지대로 많은 수의 젊은 여성들이 몰려 왔을 때, 정부는 그들에게 어떤 적당한 숙박 시설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많은 일반 주택 소유자와 가축용 헛간 소유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집과 헛간을 급히 개조하여 허술한 숙박 시설을 제공했다. 이처럼 급조된 시설은 아주 기본적인 편의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면, 30-40명이 숙박하고 있는 장소에 단지 1개만의 화장실이 있다. 목욕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침대 없이 맨 바닥에서 잠을 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취사도 같은 곳에서 한다. 이런 곳은 통풍도 잘 안되고 전기도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이러한 형편없는 조건을 감수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식비와 기숙사비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갈취 당한다.

3. 사회문화적인 상황

노동자들의 역할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스리랑카 내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사회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결혼을 위한 준비의 수단이기도 하다. 여성의 직업은, 그 직업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사회 속에서의 본인과 그 가족들의 지위와 역할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어떤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 FTZ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종종 방송에서 들리는 사회적 오명이 있다. 공장 여성들은 다루기 쉬운 성적 노리개며 쉽게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여성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편견은 항상 공장 여성들을 따라다닌다.

- ㉡ Katunayake와 Biyagama 지역의 FTZ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타 지역출신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하위문화로의 적응에 다소 문제를 갖는다. 반면에 Koggala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접 지역 출신들이다.
- ㉢ 분명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며, 여성 노동자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 ㉣ 성희롱은 공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 ㉤ 이 지역 내에는 문화, 오락 시설이 거의 없다. 과거 한 때는 매 주말마다 뮤지컬 공연이 있었지만 젊은 여성들의 비행을 부추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아 폐지되었다.
- ㉥ 의류 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다.
- ㉦ 비록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공장의 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 임금 계약상,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공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스리랑카 노동법에 대한 위반이자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건강과 환경문제

젊은 여성들의 건강상태 - 여성들의 대부분은 체중미달이고 또 많은 여성들이 위장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나 끼니 문제에 신경 쓸 여유를 갖지 못한다. 병이 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은 계속 일을 해

야만 한다.

노동자 건강에 관한 문제는 이 지역의 공장 지대에 결여된 또 하나의 개념이다. 물론 공장 안에 작은 의료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가지고 일하는 이곳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작업 환경도 건강을 위협한다. 여성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무시하는 공장에서 일주일 중 6일을 일하고 추가적인 교대 근무까지 강요당하고 있다. 상해나 질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의료 시설조차 제공되지 않는다. 몇몇 공장들은 상담제도를 도입했지만, 상담자들 역시 노동자의 편이 아닌 관리자의 편에서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결근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여성 노동자들의 밤교대 근무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승인 받은 ILO협약에 의해, 여성의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규정은 점차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률에 대한 수정 요청이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을 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조건이 따랐다.

- 밤 근무 시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역의 노동위원회(Assistant Labour Commissioners)에게 보고해야 한다.
- 어느 누구도 여성의 밤교대 근무를 강요할 수 없다.
- 여성 감독자가 있어야 한다.
- 저녁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 밤교대 근무가 낮교대 근무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밤교대 근무 후에는 귀가 차량이나 잠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 밤교대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㉕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앞에 제시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밤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규제들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㉖ 밤교대 근무를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공장 관계자들은 긴급한 선적 일을 맞추기 위해 밤교대 근무를 하는 여성들에게 차량도 추가수당도 제공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밤교대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6. FTZ 공장 지대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노동자협의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자협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관리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공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자협의회가 관리자들의 감시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노동자협의회는 결코 노동조합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시도들은 관리자들의 강압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만다. 비록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동료 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7. 1994년에 정부에 의해 노동현장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현장의 내용들은 고용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대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퇴직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만, 투자자들은 고용과 해고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8. 통근 차량의 미제공문제는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하고 밤 10시 이후에 퇴근해야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또 다른 큰 위험 요소이다.